



이제, 표명하는 처음으로 낯선게 많다.



VIRUS

VIRUS

VIRUS

2018년 10월 18일

이제, 표명하는 처음으로 낯선게 많다.

4781

지금 PLAY 되는 것은

여성억압, 자치권 통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판치는 현실입니다.



VERSE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REVERSE

안녕하세요?
류민희, 전주현 입니다 !



18대 총학생회
류민희(행정) 전주현(건도조)
선거운동본부

후보들이 걸어온 길...



- '93 양재고등학교 졸업
- '95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입학
1학년 과대표,
여성문제소모임[사람과사람]활동시작
- '96 총여학생회 사회부장
- '98 법정대학생회 사무국장
- '00 총학생회 사무국장
- '01 법정대 학생회 학생회장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여성문제연구팀
18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출마



- '95 대진여자 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입학
- '96 동아리 철학연구회 활동시작
조경학과 학생회 연사부 활동
- '99 국가보안법 철폐 연대회의 준비위원
- '00 36대 총학생회 연사부장
- '01 3.8세계여성의 날 행사 조직팀 활동
여성문제 연구세미나팀'아름'운영
18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출마

CONTENTS

양성평등으로 반전

1부

- 3 여대생 취업 대란 - 최후로 고용되고 최초로 해고되기
- 5 여성의 소외, 성의 소외 그리고 성폭력
- 7 호주제 - 있으나마나 하거나 혹은 나쁘거나
- 8 모성보호법 - 되로 주고 말로 받기

학교의 주인으로 반전

2부

- 10 What Women Want : 여학생 복지
- 12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 14 대학노조 서울시립대 지부의 파업을 바라보며
- 16 교육의 시장화

평화를 위한 반전

3부

- 19 아프가니스탄 전쟁, 묻고 답하기

1부. 양성평등으로 반전

여대생 취업 대란
여성의 소외, 성의 소외 그리고 성폭력
호주제
모성보호법



■ 여대생 취업 대란

최후로 고용되고 최초로 해고되기

어느 여대생의 하소연

‘학점 3.95, 토익 940점, 영어회화 가능, 워드프로에서 자격증 소지...’
서울 명문대 사회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서모씨(24. 여)의 이력서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보다 화려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말도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하지 못
한다. 올해 초부터 30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아직 불안한 심정으로 취업문을 두드려야
하는 산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씨는 “졸업생 선배나 같은 과 동기 중에 상당수가 과외나 속셈학원 강사를 하고 있
다”며 “미국에서 기본 영어실력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동아일보 11월 3일자)

이 한 편의 기사를 읽으며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여학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여학생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한 여대생의 이야기는 비애를 넘어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

4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온갖 자격증과 어학능력을 키웠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높아지는 실업률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권위 있다는 각종 취업대책 전문가들은 너무 고르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합니다.

"묻지마 취업"

그런데 과연 우리 여학생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취업이 안되나요?
한 인터넷 취업 전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응답자의

69.7%인 428명이 전공불문에 어떤 기업이라도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합니다. 오죽하면 “묻지마 취업”이라는 말이 유행할까요? 부모님과 친척들은 취업이
안되면 시집이나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맞벌이 못하면 결혼도 못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입니다.

일자리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관행은 여학생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여대생은 면접에서 “남자친구 있느냐?”는 질문을 받
고 정말 황당했다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
축하고 실업예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남은 파이를 두고 싸울 것
이 아니라 파이를 늘려야 합니다. 성 차별적 고용관행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만 떠맡겨져 있는 모성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 해 출산휴가가
확대된 파정도 이런 사회적 움직임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시립대 여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표현하고 연대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은 모두 개인의 문제로 돌려졌습니다. 취업정보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여성취업을 전담하는 통로가 부족해 뽈뽈이 인터넷을 뒤져봐야 했습니
다. 심각한 여성 취업문제를 고려한다면 학내 취업정보실에 여성취업 전담 부서를 두고
정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풀어갑시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를 향해 요구합니다. 작지만 이런 흐름들
이 모아지고 확대된다면 조금씩 바뀌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요구해 봐요!

취업정보실 여성취업전담부서 신설

근로기준법 여성보호조항—연장·야간·휴일노동 금지—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실업자의 가입관리인정·실업급여 확대·모성비용 전액 국가부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왜곡된 性 바라보기? 바로보기!

여성의 소외, 성의 소외, 그리고 성폭력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한번씩은 화제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性입니다.

성은 개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더 이상 성적 대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많은
여학생들이 이 성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채용기준이
되는 속에서, 성적대상화·비하되는 농담 속에서, 수동적인 성 역할이 강요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
까요?

우리의 성을 개방해 봅시다.

스무 살 넘도록 받은 성교육이라고는 SEX에 대해서 작게 이야기하기, 잘못하면 낙태
할 수 있으니 조심하기 정도입니다. 실생활에는 도움이 전혀 안되는 ‘성교육’이 아닌
지금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SEX를 이미 경
험한 사람, 경험하고 싶은 사람, 경험하기 두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
도 제대로 된 성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
으로 이야기하는 것.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우리 훌륭한 강사와 함
께 훌륭한 성교육을 시립대에서 받아봅시다.

반전의 시대

성폭력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공개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온 "반성폭력 학칙제정"은 심각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어온 대안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성폭력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고민 거리를 던져주고, 성폭력 해결을 위한 열의의 결과로 98년도 9월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이후 예대위)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대위가 건설된 이후, 15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예대위 건설과정에 시립대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과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지금도 반성폭력 학칙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시립대 학우들의 공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학내에서 처음으로 반성폭력 학칙제정에 성공했던 서울대에서는 반성폭력 학칙제정 캠페인과 집회 등을 학우들과 함께 조직했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교수의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일부 교수와 학교측의 권위적 태도로 인해 학생들이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학생들의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우들의 열의와 참여의 결과로 반성폭력 학칙은 제정될 수 있으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칙이 징계, 처벌과 규제의 역할이 아닌,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교육과 성폭력 학칙이 상호 보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수입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성역할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밝혀주듯이, 사회속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는 여성의 성적 억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평균 57%이며, 비정규직의 65%가 여성인 조건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성의 성적 소외와 성차별이 사라지기 원하는 우리들이 해야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반전

여성평등으로
학교의 주인으로
학우들의
평화를 위한

■ 호주제

있으나마나 혹은 나쁘거나

한 해 3만 여명의 여아들이 낙태 당합니다. 이혼한 엄마가 키우는 아이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호적을 파서 남편의 집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죽하면 "호적을 파가라"는 말이 욕으로 사용될까요? 심지어 남편이 사망하면 두 세살 짜리 아들이 성인 엄마의 호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호주제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차별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호주제가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이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호주가 가족 구성원의 이동과 사망, 출생을 신고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도 이 법을 폐기한 상태입니다.

미국 대학의 여성학 교재에는 호주제와 여아낙태 때문에 한국이 나이지리아나 케냐처럼 대표적인 여성 인권 후진국으로 올라왔습니다. 법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면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양성의 대립을 낳는 호주제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 모성보호법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4 명으로 프랑스 1.7명보다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너무 이기적이고 쾌락적이라서 그럴까요?

대학을 나와 취업한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러다 아이가 자라고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곡선은 후진국형인 M자형 곡선을 그립니다.

일본은 10년 전 우체통 수만큼 탁아소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지금도 엄마들은 아이 맡길 곳을 찾아 헤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떠맡겨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때문에 여성채용을 더욱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률이 멕시코 보다 낮은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모성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고 이런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 출산휴가가 90일로 늘고 육아휴직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기업들은 육아휴직급여 월 20만원이 부담되어 여성 채용을 못하겠다고 뽀니를 부리고 정부는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개정된 모성보호법은 오히려 야간근로와 갭내 작업금지 조치 같은 여성보호 조항들을 완화시켜 노동하는 여성의 몸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리, 임신, 출산, 육아는 우리 사회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사회가 책임을 나눠야 하는 과정입니다.

2부. 학교의 주인으로 반전

What Women Want : 여학생 복지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대학노조 서울시립대 지부의 파업을 바라보며

교육의 시장화



■ 여학생 복지

What Women Want

말 그 자체 쉬기 위해 여학생들이 찾아가는 쉽터. 하지만, 특히 올해 근로장학생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쉽터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용한 사람들이 치우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요. 사용할 때 깨끗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구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공간을 책임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매점과 도서관에 근로장학생이 있는 것처럼 쉽터에도 근로장학생이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여학생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근로장학생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학생 쉽터 깨끗했으면 좋겠어!
근로장학생이 필요해!

여성학,
좀더 폭넓게,
좀더 다양하게!

「여성학」, 「남녀평등과 인간화」,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성과 문화적 제언」, 「여성교육개론」, 「여성과 건강」

연세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성과 관련된 인문학 교양강좌들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마다 신청할 과목이 없어서 피로운 날들. 그나마 들을만한 몇 개의 과목들은 개설숫자가 작아 12시가 되자마자 컴퓨터 앞에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여성관련 교양강좌가 늘어난다면 수강신청 기간이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현재 각 건물 1층(21세기관 제외)에는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자판기 대수가 늘어서 조금은 편리해 졌어요. 하지만, 4층이 기본이고, 높게는 8층까지 있는 건물에서 1층 화장실에만 자판기가 있다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화장지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에게는 필수인 생리대. 모든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가
필요합니다.

도서관에서
후문으로 가는 길
가로등 필수!

후문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서 동선이 아주 짧아졌지요. 하지만, 해가 지면 여학생들은 이 길을 사용하기가 영 불편합니다. 후문 앞과 도서관 앞에만 가로등이 있고, 그 작고 꼬불꼬불하고 옆에 나무들이 우거진 길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작년 총학생회가 가로등을 요구했는데, 학교측에서는 길가 가정집에서 너무 환한걸 싫어해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설치 못하나요? 아니요!! 한쪽 방향을 분명하게 비출 수 있는 등도 있습니다. 올해는 설치해야지요. 그래야 맘놓고 다니지 않겠어요?

반전의 시대

■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대화

초등학교 시절 학교의 주인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듣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들은 “학교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며 이런 ‘주인의식’을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무한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생님 말을 따랐던 당시의 기억은 웃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학교의 주인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학교의 주인은 무조건 학생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대학은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그리고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직원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구성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운영은 이 세부분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소통과 토론이 존재하고 합의를 통하여 운영되는 대학이 진정 민주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대학이라는 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학교는 그리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학교에는 학교당국에 의하여 형사고발된 7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중 4명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4명중 1명은 아직도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3명은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기성회비 인상을 : 재학생 9.5%, 새내기 19.5%)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던 본관점거농성으로 있었던 대규모의 징계와 형사고발은 아직도 우리학교에 현재진행형의 ‘상처’로 남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자 했던 것에 돌아온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것입니다.

등록금을 100만원 넘게 내는 시립대 학생들은 현재 학교의 어떠한 결정사항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

양성평등으로 학교의 주인으로 평화를 위한 반전

인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주요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세기관 공간배정방법, 사물함·컴퓨터의 위치 배정, 총여학생회 컴퓨터의 근로장학생을 배정하는 일 등의 교육여건에 관한 내용은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잘 압니다. 학생들의 의사가 이러한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장식품과 같은 컴퓨터가 식당곳곳에 배치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대학사회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학교에 주장할 수 있는 학생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학운영의 주체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학생들의 교육의 일주체가 아닌 학교당국이 시키는 것을 따라야 하는 ‘애물’로 취급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교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의 운영목적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은 질 높은 교육환경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토론되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대학운영은 구성원들간의 존중과 토론,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말 그대로의 진정한 교육의 실현입니다.

학내민주주의의 실현! 존중과 토론으로의 합의! 학교를 바꾸어 봅시다!

■ 대학노조 서울시립대 지부의 파업을 바라보며

여자니까, 고졸이니까, 시키는 대로 일해라?

전국대학노조 서울시립대 지부가 지난 10월23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의 14차례의 단체협상에서 학교측과의 협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내려진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반전의 시대

전국대학노조 시립대 지부(이하 대학노조) 노동자분들 - 쉽게 말해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 -의 근로조건은 다른 대학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학노조 시립대 지부의 조합원은 32명이고, 그 중에서도 업무에 따라 사무관리직과 시설관리직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직(전원 여성분들)의 정년은 45세 밖에 되지 않습니다(시설관리직은 57세). 이것은 분명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탄압입니다. 임금 또한 전국 국공립대 대학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 기능직의 90%이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학교는 82%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립대라는 우리 학교의 특성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실제로 사무보조직에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은, 공무원과 똑같은(혹은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은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공무원분들은 보통 2~3년 정도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업무가 능숙해 질 때 쯤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관리 업무를 하시는 조합원 분들은 같은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능숙하고 그만큼 학교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궂은 일(청소, 시설관리 등)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난 25년 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다른 대학과 똑같이 받게 해달라'는 것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14차례의 단체협상(이하 단협)에서 학교측은 일방적인 단협의 거부와 책임자가 협상에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고, 지난 9월 20일, 사무직 정년을 50세로 올리고, 임금을 기능직 공무원 대비 90%로 올리자고 합의 하였으나, 10월 22일 14차 단협에서 학교측의 책임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파업 중에도 학교측은 전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無노동 無임금'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 파업이라는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데도... - 시설관리직 노동자 분들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분파업(업무를 하면서 쉬는 시간에 파업현장에 결합하는 것)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은 '파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미 인력 다 배치했으니까, 너희는 필요없다.'라고 말하며 파업을 유도하였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인사상 비밀인 기성회 노조 분들의 학력을 밝히는 등 치졸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학교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VTR, 시청각기기 등을 빌릴 수 없도록 시청각실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똑같은 날 파업에 들어갔는데도 조합원들에게 저마다 다른 월급이 나가서 내역공개를 요구했지만 이것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업을 분쇄하고 조합원들의 결속을 해치려는 학교측의 시도입니다.

학교는 책임감을 갖고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파업을 유도하고 정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대지부 조합원들은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간의 결속력이

양성평등으로 학교의 주인으로 평화를 위한 반전

더욱 좋아졌다.', '우리의 파업을 지지하는 여러 군데서 파업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어서 힘이난다.' '우리의 파업으로 피해를 보게된 학생, 교수님, 교직원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학교측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학교의 주인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파업을 정말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해야 합니다.

교직원들에게 다른 학교 수준의 대우도 해주지 않은 채로, 우리의 교육여건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교직원 분들도 우리 학교의 당당한 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학교측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노조의 파업을 지지해야 합니다.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45세 정년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국 국립대 최하위 수준의 임금—임금인상은 정당합니다.

■ 교육의 시장화

당신의 지갑의 무게와 당신의 지식의 양은 비례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곳은 서울시립대학이라는 공립대입니다.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학교의 공립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할 결정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교육의 의무 즉, 공교육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사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토대로써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함은 헌법에조차 명시된 국가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국가의 의무인 공교육을 포기하려 하

반전의 시대

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효율과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을 '구조조정'하면서 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선 당시 교육재정의 GDP 대비 6%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육여건의 개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공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GDP 대비 교육재정이 1998년 4.4%, 1999년 4.2%, 2000년 4.1%로 감소되어만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에는 4.6%선으로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2002년의 교육 예산은 다시 4.4%(추정)로 줄었습니다. 교육재정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물론 모든 이에게 원하는 모든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향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의미로써의 공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교육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교육재정의 삭감과 더불어 소수의 경쟁력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교육, 특수목적, 실무로 대학을 구분하고 교육재정 지원의 축소를 담고있는 국(공)립대 발전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조건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물가 인상율의 감안과 내년 대선 등의 영향으로 늦추어 지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계획입니다. 야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부터 서열화, 우열반, 자립형사립학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삭감과 경쟁과 효율로 교육을 판단하는 것은 교육을 강한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시장'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아닌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학교의 재단 역할을 하는 서울시청의 민영화 사업장의 하나로 서울시립대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살펴볼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민영화된 서울시립대에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 조건을 살펴볼 때 너무나 무리한 바램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의 시장화가 아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전

3부. 평화를 위한 반전

미국은 왜 아프간을 공격하는가?
탈레반은 왜 여성을 억압할까?
여성단체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
"고도의 정밀무기"?
반전행동은 전쟁을 멈출 수 있는가?
김대중의 전쟁지원을 지지해야 할까?



■ 아프가니스탄 전쟁 - 묻고 답하기

평화에게 기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마디 인사도 전하지 못한 채 소변 없이 죽어간 수많은 미국 시민들은, 보복 전쟁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어야 하는 슬픔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청소부로 일하다 죽어간 흑인 여성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아이들이 부시 행정부의 보복 전쟁으로 인해 폭력과 빈곤으로 죽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펜타곤을 들이받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목숨을 잃은 백인 여성은 이미 두 아이를 전쟁에서 잃고 절망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어머니가 또 다시 전쟁의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러의 피해자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했던 수많은 미국 시민들은 보복 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아프간의 국제연조기관 자원자들이 그 나라를 떠나고, 그리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아이들이 다할 길 없는 절망을 맞이해야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연대 성명서 중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까?



부시는 이번 전쟁을 테러에 반대하는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단지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오래 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은 인류의 마지막 석유 보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카스피해와 인접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는 자에게는 곧 주변의 소강국들(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란 등)을에 대한 통제권과 풍부한 카스피 지역의 석유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유 역시 이것 때문이었고, 또 이것이 미국이

당시 무자헤딘과 탈레반에 1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한 이유입니다.

1990년 대 중반까지 미국은 탈레반을 통해 이 지역의 가스 송유관 건설권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1998년 탈레반과 사이가 벌어지며 무산되어 왔습니다.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유노칼을 비롯한 미국의 석유기업에게 다시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레반은 왜 여성들을 억압할까?



탈레반의 여성억압은 악명 높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여성억압은 종교의 논리적 결과라기보다는 내전의 충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느 게릴라부대와 마찬가지로 탈레반은 내전 기간 내내 사회로부터 격리된 남성들로만 이루어져왔습니다. 탈레반 지도자들은 그들의 병사들이 무자헤딘이 도시를 장악했을 때처럼 행동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무자헤딘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집단적인 강간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공공생활에서 완벽하게 격리시켰습니다. 물론 탈레반의 이런 '여성보호' 정책은 끔찍한 억압을 동반하게 됩니다.

탈레반의 여성억압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과 극심한 빈곤을 해결하는 것과 땀해야 땀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이 탈레반 이후의 대안이라고 치켜세우는 북부동맹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에게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탈레반과 북부동맹 모두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이고, 여성혐오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온 아프가니스탄 여성 혁명연합(RAWA) 대표 Tahmeena Faryel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원조이고, 민주적 선거에 이은 탈레반과 북부

반전의 시대

동맹 모두의 탈무장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종교적 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충분히 경험했다구요!"

부시의 공격은 가뜰이나 끔찍한 처지에 처해져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대부분이 흠집 속에 숨어 지내는 여성들은 폭격의 일차적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수록, 여성에 대한 학대와 강간과 매춘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여성단체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가 결성되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고도의 정밀무기로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던데..

 전쟁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부시는 공격을 시작할 때부터 정밀 폭격으로 군사시설만 정확하게 공격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그리 새로운 연사가 아닙니다. 91년 걸프전쟁에서도 미국은 "외과수술같은 정확한 폭격"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폭격의 결과는 20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당시 미국은 "부수적 피해"라고 냉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폭격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던 국제기구의 요원이 사망한 사실이나, 국제적십자 구호창고를 폭격한 사실은 실재론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간인 피해의 몇 가지 사례들만 들어보겠습니다.

3살짜리 라흐만은 수많은 폭탄 파편에 의해 부상당했고, 그의 부모님은 둘 다 죽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잔비비와 그녀의 6살 난 오빠 둘은 미국의 폭격으로 부모님과 3명의 형제, 2명의 자매를 잃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아지즈 올라는 얼굴에 폭탄 파편을 맞았으며, 4명의 형과 누나를 잃었습니다.

이런 학살들이 점차로 확산되자 절망에 찬 어느 카불 주민은 "도대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우리 모두를 차근차근 죽이지 말고 원자폭탄 한 방을 투하해 멸망시켜 버려라"며 절규를 했습니다.

반전

미국은 정밀무기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클러스터 폭탄까지 민간인 거주지역에 투하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클러스터 폭탄은 하나의 모폭탄이 일정고도에 낙하되면 그속에서 수백개의 새끼폭탄으로 분리되는 고도의 "무차별"적인 폭탄입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미국은 이런 종류의 무기에 더욱 의존할 것이고, 그에 따라 민간인의 죽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정말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1968년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의 물결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반전운동은 결국 미국에게 쓰디쓴 패배를 가져다주었고, 이 때문에 미국은 한동안 제3세계에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자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동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반전단체가 만들어졌고, 2만 여명이 모여서 전쟁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도심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반전을 위한 캠페인은 처음 수 천명의 사람들로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곧 5만 명으로 불어났고, 가장 최근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20만 여명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파병과 전쟁지원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미국에서도 수만 여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매우 새로운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던 세계적 반전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는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 같은 일이 좀더 확산된다면, 미국의 공격을 분명히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부시의 예초 의도와는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자 전쟁을 비판하는 여론은 훨씬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전쟁지원을 지지해야 하는가?

반전의 시대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에서 부시의 전쟁을 지지한 4번째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5억 달러의 전쟁 지원금을 낸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 3배인 15억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의 돈은 BK21사업 규모의 4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는 이런 돈을 실업자지원금을 삭감하고 교육재정을 삭감하며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부시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평화에 대한 "무한한 책임"일 것입니다.

18대 총선거를 위하여
 (정당) 공민회 (정당) 공민회
 (정당) 공민회



REVERSE 버튼을 눌러주세요.
 편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 PLAY 되는 것은
 여성역량, 자치권 문제, 정쟁으로 인한 고독이 편집이 편집입니다.



18th

이제, 폭발하는 침묵으로 낮설게 말한다.

공감 바/이/러/스



정진선미, 이박수정과 함께하는 '바이러스' 선거운동



총여학생회장 후보
정진선미
(환경원예학과 98)

1978년 전북익산 출생
1997년 이리여자고등학교 졸업
1998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입학
중앙동아리 민속탈춤반 입학
2001년 17대 총여학생회 산하
생활자처도서관 Liboo 운영
18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후보 출마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여전이 뭐가 문제인지 설명할 수 없었고, 그게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 왜 아니냐에 대한 논리는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이 그것은 내 잘못이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날... 선배와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았고, 선배의 얘기들을 들은 나로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준들이 모조리 흔들리자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그런 나에게 행운이었을까?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선배는 세미나를 제안해왔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언어로 전부 이해하기는 힘들었으나 분명 가슴속에서 강한 빛을 보았다. 희망을 보았다. 그러는 순간 시야가 밝아 오는 것 같았고 그걸 깨닫는 순간 강한 의열을 느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의욕과 힘이 솟았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감동이 너무도 막혀서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고 이해받기를 원했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의열을 맛보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에게는 모두에게 놀라운 잠재력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운동'하면 대부분이 거부감부터 표현한다. 나 또한 그랬다. 나는 결코 내가 변하리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었으나 나는 변해가고 있고 내 속에 잠들어 있는 감성과 잠재력을 믿는다. 이런 잠재력을 서로 일깨워주면서 함께 즐거워지고 싶었다. 현재 내가 여자이면서 동시에 학생이기에 이런 위치에서 가장 가까워서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이기에 처음 시작하는 실천을 공간으로 총여학생회를 생각했고 소중한 공간이 될듯 싶어서 결의하게 되었다.



부총여학생회장 후보
이박수정
(영어영문학과 99)

1981년 인천 출생
1999년 인천 부광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입학
역사연구 동아리 대배달 학생회 입회
2학기 대배달 학생회 부회장
2000년 18대 영어영문학과 집행부(기획)
2001년 3회 월경 festival 중 pre-festival 기획팀
18대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후보 출마

"난 여성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동안 여성임을 인정하기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21년의 생애에서 저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활동하던 동아리 내에 다른 여자친구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관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동안 남학생들이 많았던 동아리내에서 제 자신이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받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혼란점이라는 특수한 존재로 말입니다. 남성화된 여성으로서 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돌리고 나니 나를 여성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 시대 여성 여흥학교에서, 프리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여성으로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 즐거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여성이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주변인도 아니었고 타인의 눈으로 저를 구속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이려 그 낯선 사람들을 통해 나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가나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일이라고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곳이 내가 하루하루를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며 바로 지금 그 용기를 발휘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학생의 대표로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많은 여학생들과 함께 제 열정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 내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폭발하는 침묵으로 낮설게 말한다.
공감 바/ 이/ 러/ 스

- 5 여는시 - 내가 살고 싶은 세상
- 6 17대 총여학생회를 돌아보며
- 8 정책 총론
- 10 정책 각론
 - 여학생 잠재된 힘 드러내는 연습하기
 - 여선배 · 여교수님과 만남
 - 세미나실 개방
 - 예산자치제 확충 및 보완
 -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 여학생의 일할 권리 찾기
 - 여학생 복지
- 18 성(姓)이 두 개?! - 호주제 폐지 운동에 관하여.
- 19 기성회 여직원 정년이 45세라구?
- 20 정진선미 · 이박수정과 함께하는 사람들 소개



내가 살고 싶은 세상

안정아

꿈에 본 것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들은 깊은 산 선녀탕에서 목욕 재계하고
이슬 머금은 꽃으로 머리를 단장하고
마음껏 어울려 지냈다.

꿈에 본 것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힘겨움이 아니며
노는 것이 또한 아쉬움이 아닌
그런 것이었다.
서로를 스스럼없이 초대하고
초대를 받아들일 줄 아는 세상,
마음에 들지 않은 이물끼리는 그냥 지나쳐
마음 속에 미움을 담아 두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다.
여자끼리의 만남은 물론
남자와 여자의 만남도
치마 입은 것과 바지 입은 것 때문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만남이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
작은 풀 한포기와와 만남도
귀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었다.

그건 꼭 꿈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꿈인 양 멀리 있어서
내 하루하루는 더욱 힘겹다.

< 또 하나의 문화 >



17대 총여학생회를 돌아보며

17대 총여학생회는 지난 1년간 여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여학생 자치와 연대를 모색하는 첫 실현의 단계로서 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총여학생회 자체 '예산자치제' 나 여성학 생활자치도서관 등을 통해서 여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여학생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하였다. 그리고 화장실 게시판 답변서 등을 통해서 여학생들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시도하였다.

17대 총여학생회의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은 여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각종 행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여 여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고민이 부족하여 일년간의 흐름에서 그다지 발전이 없었다. 또한 지난 '전체 여학생 총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총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지만, 충분한 고민이 부족하여, 여학생들간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총회의 기능을 간과한 과오를 남기도 하였다.

그리고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마무리 짓는 활동에서 학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존 학생회 방식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여학생들을 만나려는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여학생들과 함께 하느냐,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에 대한 고민, 그것이 17대 총여학생회에서는 부족하였다.



18대 총여학생회, 정진선미 · 이박수정 이렇게 살겠습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학생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공통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한편, 여학생들간의 소통의 장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정에서 얼마만큼 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했는가 일 것입니다.

즉, 학생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 운영 원칙인 '공개'와 '참여'를 위하여 여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두고, 여학생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여학생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통해서
여학생은 빛을 발할 수 있다.

여성에게는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변화시킬 힘이 있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주변적 위치가 갖는 잠재성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
지금까지 곁들여져 온 것과는 다른 눈으로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 것
에서부터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사회 전체 속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를 더 이상 '주변'으
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여성 자신의 경험과 시각으로 사회를 재구성하
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기에 겪게 되는 억압을 똑같이 느끼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다른 위치에서 생활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학생들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하고 싶은
이야기, 공감되는 이야기가 다르다.

따라서 다양한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낼 공간도 없었고,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낯선 일이
다.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여학생들간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
여기서 총여학생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제까지 자신만의 목소리
를 내지 못했던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여학생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여학생에게는 가능성/잠재력이 있다.'

이것이 여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 즉,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학생 개개인의 힘을 긍정하는 것에서 여학생은
주체적으로 활동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자신
의 자리를 인식하고, 가까운 일상의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학생의 가능성은,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제공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 연습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학생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활
동을 통해서, 여학생은 빛을 발할 수 있다.
여학생의 주체적인 활동은 중심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을 긍정하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
양한 여학생의 목소리로 다른 자리에 있는 이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공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현실성이 가져오는
젓빛이 아니라, 다양성이 가져오는 무지개 빛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여학생의 잠재된 힘/ 가능성 드러내는 힘 연습하기

♀ 여선배 · 여교수님과의 만남 시도

여학생의 잠재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학생의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여선배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선배들은 여학생들에게 역할 모델 될 수 있다. 여선배들의 생생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관계가 이어진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98년도) '여교수님과의 간담회'라는 자리가 있었지만, 여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연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임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연스런 만남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이나 여선배들을 만난다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만남을 갖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신이 속한 과의 교수님을 컴퓨터에서 만나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세미나실 개방

조발표 모임을 해야하는데... 과 학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모이지?' 라는 고민을 한 두 번씩 해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내에서 모임을 가질 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 총여학생회의 세미나실을 개방하고자 한다. 총여학생회의 세미나실을 개방하는 것은 학생회 공간을 함께 쓴다는 점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세미나실 공간은 현재의 총여학생회 세미나실과 여성학 생활자지도서관을 합쳐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학 생활자지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예산자치제 확충 및 보완

총여학생회 자체 예산자치제는 총여학생회에 배분된 학생회비를 통해 여학생이 중심이 되는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17대 총여학생회에서 처음 진행한 것인데, 아직까지 여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여학생들이 활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산자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여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단은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총여학생회에 배분될 학생회비 비율을 늘리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교측에 여학생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 할 것이다. 또한 단대 여학생 대표들과 함께 예산자치제 운영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의 고민이 아닌 예산자치제 운영위원회의 고민으로 발전시켜, 여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미와 수정이의 말이 되는 상상

6회 여성 누리제를 "10만원 문화제"로 ~?!

여학생들만의 축제의 장인 여성 누리제를 여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10만원 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여성 누리제는 총여학생회에서 주관하면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문화제'란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모임에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여성 누리제 자리에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예산자치제가 있는 지 몰랐거나, 혹은 알았는데도 기회를 잡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한 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10만원 문화제"는 여러분의 색다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말머리) ANTI - Sexual violence !

♀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참여'와 '공개' 보장!

학내 성폭력은 학내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오미려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더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나 대학에서 생활할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내 성폭력 문제를 대학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총여학생회에서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잘못된 학내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 중의 하나로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진행하였다.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은,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반(反)성폭력 학칙은 우선, 학내 구성원 - 교수, 교직원, 학생 -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학내 구성원의 생활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학의 특성상 구성원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학칙'이라는 안정적인 틀거리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학칙의 본래의 의의를 염두에 둔다면 이제까지의 학칙처럼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를 띄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칙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경우, 교직원과 교수가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특성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 실정을 잘 파악하고, 학칙의 의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를 보장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학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시행세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반(反)성폭력 운동 진행 상황

97년 여학생 상담실 마련

98년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 발족

-- 학생, 교직원, 교수 위원으로 구성

99년 새터 성문화 지침이, 성과 친해지기 주간 등을 통한 학내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00년 여러 단위 대표자들이 모여서, 반(反)성폭력 학칙안 마련

01년 현재 학생생활연구소(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 실무 담당기구)와

17대 총여학생회가 학칙 기안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함.

선미와 수정이의 말이 되는 상상

02년 학생들의 참여와 공개
- 피드백을 통하여 반성폭력 학칙 제정됨



여학생의 일할 권리 찾기

20살의 희망, 24살의 절망 사이에서.

여학생들에게도 일할 권리가 똑같이 주어져야 함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적어도 머리 속으로는.....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이 닥쳐오자. 상황은 역전
여학생들은 여전히 구직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막상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리 해고 0순위에 끝낸다. 그 이유는 여성에게 "일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평생직업을 갖겠다'는 생각과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취업 기회 자체가 적은 데다가, 승진·업무배치·임금에서 차별은 지속된다. 게다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여성에게 전가되는 육아문제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여대생의 현실에서, 여학생의 입장에서, 여대생 취업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학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상하여, 학생서비스센터 내 취업 담당 부서와 학생생활연구소에 요구할 것이다.

그 가운데, 지금의 성차별적인 취업구조와 여성의 일에 대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의 사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여학생회에서는 여학생들과 여성에게 있어서의 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정 여러 가지 특성
그러므로 우리 학교
여야 한다.

18th VIRUS
정진선미 · 이박수정과 함께 하는 사람들



♀ 여대생 취업! 그 좁은 틈새를 뚫기 위하여 - 학교측에 요/구/하/기

* 1 · 2학년 : 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미리 고민할 기회를 마련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학생이 자신의 일에 대해 미리 고민할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3 · 4학년 : 여학생들 자기 특성 계발, 성차별 대처 프로그램

이제까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여학생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열려있지 않았던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에게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성차별·성희롱을 겪게될 경우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여학생의 일할 권리 찾기 - 함/께 고민하기

여대생 취업 현실 속에서, 여학생에게 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왜 여대생들에게 취업문이 좁은지 등에 대해 여학생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문화에 대한 문제 의식 보다는 그 고민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학생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에서부터 작게나마 여학생에게 있어서 일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제, 희망이란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공감 바이러/스



쾌적하고 편안한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

우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이대로 놔둘 순 없다. - 쉼터 청결 문/제/있/다

학내 전반적으로 복지 공간이 열악한 상태이다.
그런데, 여학생 휴게실이 먼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쉴 만한 공간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여학생 휴게실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의 제약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여학생 휴게실은 꼭 필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여학생 휴게실이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공간임에도, 학교측에서는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 자치 공간이기 때문에 근로장학생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여학생 휴게실은 이렇게 1년간 방치되었다. 가뜰이나, 산뜻할 것 없는 여학생 휴게실에 이제 쓰레기로 넘쳐나 그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던 많은 여학생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

따라서 학교측에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청결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학교측에 문의한 결과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에 함께 올리면, 그 타당성 여부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관과 도서관 여학생 휴게실 시설 보강과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에 대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요구하겠습니다.



선미와 수정이의 말이되는 상상

우 쉼/터 이 정도는 되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과제 때문에, 친구들과 밤을 꼬박~@.@ 그래도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겠지? 쉼터(잠자는 방)로 가야~ 근대 이게 웬걸 이 한겨울에 모포 한 장이 뭐래???!! 넘 추울 것 같은데.. 겨울용 이불이 있으면 넘 따뜻할 것 같은데..

작품하나 끝내고 나니까 온 몸이 먼지 투성이네.. 쉼터 샤워실에서 깨끗이 씻고 다음 수업 들어가야겠네.. 앗 근대 비누도 없는데 여케하지? 화장실에 비누 있는 것처럼 샤워실에도 비누와샴푸가 있었음 좋겠다

아~배고파.. 리면 하나 끓여 먹을까?
에~ 근대 왜 쉼터에만 정수기 교체 안된거지???

도서관까지 가기에 공강시간이 1시간이라... 어정쩡하네.. 쉼터 공부방에서 책 좀 읽어 볼까나??? 에구구.. 근대 책상은 비그덕 거려서 옆 사람 신경쓰이고, 의자는 또 뭐야? 이거 식당용 의자 아냐???!! 책상이랑 의자가 바뀌면 나같은 여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텐데..

쉼터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신발이 너무나 어지럽게 널려 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신발을 밟고 들어가야 한다. 입구에 신발장이 있으면 신발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편할텐데...

선미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뭐 하면서 기다릴까?? 이럴 때 컴퓨터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사용 잘 안하는 식당 컴퓨터가 이런데 있으면 좋을텐데..

우 도서관 여학생 휴게실 이 정도는 되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시험 때 밤샘 공부하다가 쉬러 여학생 휴게실로 갔는데, 참 잘 데가 없다. 그도 그럴것이.. 2층 침대가 달랑 1개니.. 딱딱한 긴 의자 대신에.. 침대가

급하게 e-mail을 보고 싶은데, 밖에서 보기는 좀 뽕뽕해서 휴게실에서 보고 왔더니... 또 고장이야? 왜 이렇게 컴퓨터 관리가 안 되는 걸까???

우 이런 날을 기다린다.

가는 날이 장날인지? 생리대 자판기는 연날 고장이야~!! 게다가 1층에 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갑자기 월경을 시작하면 넘 불편해~ 참! 글구 생리대는 왜 이리 비싼거야?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리대도 늘 화장실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부모성함께 쓰기 운동 Q&A

Q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하면 다음 세대에는 너무 이름이 길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가령 방구같은 이상한 성이 조합되면 어떡하나요?

A 부모성 함께 쓰기는 문화 운동의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성을 부모의 양 성(姓) 중 하나씩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가령 정진선미 중 진을 선택하고 이박수정 중 이를 선택하여 진이○○로 사용하면 되겠죠.

Q 부모성함께 쓰기는 왜 하나요? 지금 이름에 만족하나요?

A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의 시작은 호주제 폐지를 논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호주제가 남아선호 사상을 더욱 만연하게 하고 또 어머니의 이름을 잊혀져가게 하는데 안 뉘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주제가 여성들의 자리를 더 작게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남성들에게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주고 있기도 한 것 같거든요.

Q 하지만 호주제는 우리 고유한 전통이지 않나요?

A 호주제는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부가 식민수탈에 필요한 세금, 부역, 징병, 인구 파악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한국사회의 유교문화가 결합하면서 교묘히 전통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족보도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조선시대 중기까지 족보에 모든 딸들과 그 사위가 당연히 아들과 같은 비중으로 이름을 남겼대요.

Q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A 일본에서는 결혼할 때 부부 성씨 가운데 어느 쪽을 가족 성씨로 할지 협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부부가 결혼 전 성씨를 그대로 쓰되 자녀의 성씨는 협의해서 정합니다.

Q 만약 호주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요?

A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아는 한에는 반드시父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출생시 부부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료발췌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18

기성회 여직원 정년이 45세라구?

"파업 〇〇일째"

정문을 들어서면 파업을 며칠째 하고 있다. '임금협상, 정년보장' 등을 요구하는 플랜카드가 본관 앞을 중심으로 걸려있다. 그리고 여러 학생회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플랜카드도 함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성회 직원'이라는 말이 낯선 것 같다. 서울 '시립' 학교에는 모두 공무원만 있는게 아닌가라고 막연히 생각했기에..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는 무관하게 서울시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성회 직원분들은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기성회 직원이라고 불린다. 기성회 직원분들은 행정직 19명 (모두 여직원임), 환경미화원 14명(여 4명, 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왜 기성회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걸까?

현재 기성회 직원들은 임금과 정년문제에 관해 학교측과 약 1년간 협상과 정을 거쳤으나, 학교측은 기성회 직원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성회 행정직 여직원들만 정년이 45세(나머지 57세)로 되어 있다. 이에 노조원 분들은 정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부당(58세까지 정년보장)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왜 행정직 여직원만 정년이 45세로 되어 있는 것인가? 전 서무계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자 직원은 나이가 들면 일 시키기가 힘들어 진다." 이것은 여직원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본다.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 것도 아닌,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우리 학교 여직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상황만 보더라도, 여성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편견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차별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있다. 아직까지 남의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놀라운 한편,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19

정진선미 · 이박수정과 함께하는
VIRUS 선거운동본부 소개합니다.

== staff ==

사무장 송왕주영 (철학 98)

비서단 최윤선 (토목 99)

이수진 (경영 97), 가연 (도시복 99), 한은혜 (전통 99),
전희경 (전통 00), 강지아 (전통 00), 종경 (정밀 00),
박효진 (경제 01), 하진희 (철학 01), 최통규 (환경 01)

정책단 이신인경 (환경 97),

은아 (전통 99), 경순 (세무 00)

선전단 지혜빈 (전통 00)

조직단 김이원경 (생명 97)

홈페이지 지혜빈 (전통 00)

편집 김지혜 (산디 98), 이익영 (산디 99)

고문 이신윤미 (경제 97), 김황시연 (환경 97)

== 도움주신분들 ==

이콜, 스펀, 여성문화연구동아리 MUST, 탈반, moony
습사탕, 느리, marock, 아해, 김마담, 상조희 등

